

통권 제 236호

강남. 라 00943

2567
2023

06

원정 대상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13
세상을 향한 빛



마음의 등불
애야 좀 더 있다
가려문



지혜의 트랙
고려시대에 있었던
장애인 혐입 불사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불교충지중

마음과 행위 따라 화복이 달라진다

마음이 씨앗이요, 행위가 연이 되어 모든 과가 일어난다.

같은 땅에 종자 따라 결실이 다르듯이 같은 세상에 마음과 행위 따라 화복이 달라진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일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살다보면 _34

더불어 행복

_ 이옥경



십선성취 _50

리틀 붓다
키아누 리브스

_ 남혜 정사



씨앗 한 알 _72

수행자의 힘
믿음과 말김

_ 법상 스님

-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 12 불교이야기
- 18 마음챙김 메커니즘
- 23 경전에서 찾은 지혜
- 26 산책
- 28 문화재 해설
- 31 붓다in미디어
- 34 살다보면
- 40 마음의 등불
- 43 여행여담
- 46 지혜의 뜨락
- 50 십선성취
- 54 속담으로 보는 불교
- 58 나만의 빛, 모두의 빛
- 62 서원당 안의 불교
- 65 금쪽상담소
- 68 마지막 공부
- 72 씨앗 한 알
- 76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일정

- 불공 잘해라 - 세상을 향한 빛 — 김천
- 삼보귀의 2 — 화령 정사
- 마음의 구조 — 임진수
- 끝없는 참회 — 불교총지중 법장원
- 낙동강 앞에서 동지가 가렵다 — 오대혁
- 조선 왕실의 불화,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 TERU 조세훈
- 더불어 행복 — 이옥경
- 애야, 좀 더 있다 가려른 — 김형술
- 동묘시장, 그 신비한 거리 上 — lovely찌이
- 고려시대에 있었던 장애인 협업 불사 — 방귀희
- 리틀 붓다 키아누 리브스 — 남혜 정사
-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 김성철
- 무예 24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 육자의괘 — 해광 정사
-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 딱새에게 보내는 편지 — 유소림
- 수행자의 힘, 믿음과 말김 — 법상 스님

딱정벌레 자동차

1938년 처음 생산된 폭스바겐 ‘비틀’은
딱정벌레 같은 귀여운 외형에 낮은 가격으로
독일의 국민차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폭스바겐은 비틀의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연비가 좋은 큰 차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약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틀의 작은 외형을 부각하여
‘작은 것을 생각하세요(Think small)’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작은 것을 더 작게 보이게끔
지면에 많은 여백을 두고 광고했습니다.
광고는 가히 혁신적이었고
비틀의 인기도 날로 높아갔습니다.

딱정벌레를 뜻하는 비틀(Beetle)이라는 이름도
미국 시장 진출로 인해 붙여졌습니다.
이후에도 17년 동안 260편의 광고로 이어졌으며
미국에서만 한 해 56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킨 전략으로
지금까지도 비틀은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강점으로 승화해 보세요.
오히려 누구에게도 없는 자신만의
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3년 4월 29일 자>

불공 잘해라 세상을 향한 빛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即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9화 - 입교 2

대성사는 정통밀교를 세우기 위해 잊혀진 인연의 흔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경전을 엄밀히 살펴보아 소승, 대승, 밀교 경전을 나누어 검토하면서 아함부 경전에서도 비밀주秘密呪가 있음을 찾아냈다. 섞여 있는 모래알 속에서 보석을 고르듯 밀교적인 것과 밀교의 핵심을 나누어 살폈다. 그 둘을 나누어 보는 대성사의 설명은 이렇다.

“초기 대승경전에 속하는 『법화경』은 진언, 즉 다라니로 수행의 세계를 설명했다. 보살행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다라니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본연부에 속한 『방광대장엄경』에도 밀교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밀교적인

것과 밀교는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밀교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밀교가 아닌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통력이나 주문 등은 밀교적이기는 하지만 밀교는 아니다.

밀교의 수행은 신통력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주문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함도 아닌 것이다. 신통력이나 원하는 바의 성취는 밀교 수행의 결과는 될 수 있을지라도 그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잘 살펴 정통 밀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대성사에게는 누구로부터 배울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자신이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천 년 세월을 넘어 다시 꽃필 정통밀교의 맥이 흐트러질까봐 마음을 다져 먹어야 했다. 그렇게 살피고 살핀 끝에 정통밀교를 세우는 데 필요한 내용을 찾아냈다.

“정통적 밀교는 반드시 조직과 체계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유사밀교이다. 바른 밀교는 인간과 자연계를 완전히 조화롭게 파악한다. 특수한 것 가운데서 일반성을 인식하고 서로 비슷한 무리로써 드러나 이루어진다. 인간은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모든 인간과 관련을 맺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밀교에서 인간과 세상이 촘촘히 얹히고 짜인 그물과 같아 중중제망重重帝網이라고 한다.”

집을 짓고 길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이다. 뼈대를 어찌 세우고,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바로 정하지 못하면 집은 쉽게 무너질 것이며 길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전쟁 중이었지만 대성사는 경전을 살펴보고 비밀주를 찾아 외우며 수행을 통해 지옥의 화염 속에서 연꽃을 피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러기 위해 이제 막 틀을 갖추어가는 새로운 밀교 종단도 조직과 체계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믿었다.

당시 회당 대종사가 주축이 된 심인불교心印佛敎는 밀교를 표방했지만 막 시작하던 단계라 부족함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인재가 부족하고 새 교도들이 밀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있었다. 교리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처음에는 참회를 내세웠고, 다시 심인을 밝혀야 한다고 기치를 세웠다.

참회는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심인 또한 다라니로써 마음의 근본과 일치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일반 교도들의 이해는 깊지 못했다. 그러니 교법의 정비와 조직과 체계를 세우는 일이 시급할 수밖에 없었다.

밀양 심인당에 출석하면서 대성사는 자신이 본 바와 생각한 바를 세세히 적어 회당 대종사와 깊이 논의하기 시작했다. 난리

통이지만 교세가 급격히 팽창하던 때라 스승을 세우는 일과 수행의 교범을 만드는 일이 중요했다. 남녀 스승을 ‘정사正師’와 ‘전수傳授’로 부르는 용어도 당시에 이르러 정해졌다. 교법의 체계 하나하나가 대성사와 회당 대종사의 고민 끝에 정립되기 시작했다. 밀교의 교리 또한 새로운 시선과 해석으로 제자리를 잡았다. 대성사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던 시기였다.

1953년, 전쟁은 거의 끝을 앞두고 있었다. 밀양과 부산 등지에는 홍남 철수 때 피난 온 이들이 많았는데, 그들도 빠른 시일 내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는 듯 피난지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현실의 불안정함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종교적 고민을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절과 교회를 찾는 이들이 줄을 이었고 새로운 종교적 움직임도 생겼다. 생존의 문제만큼 불합리한 현세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이들도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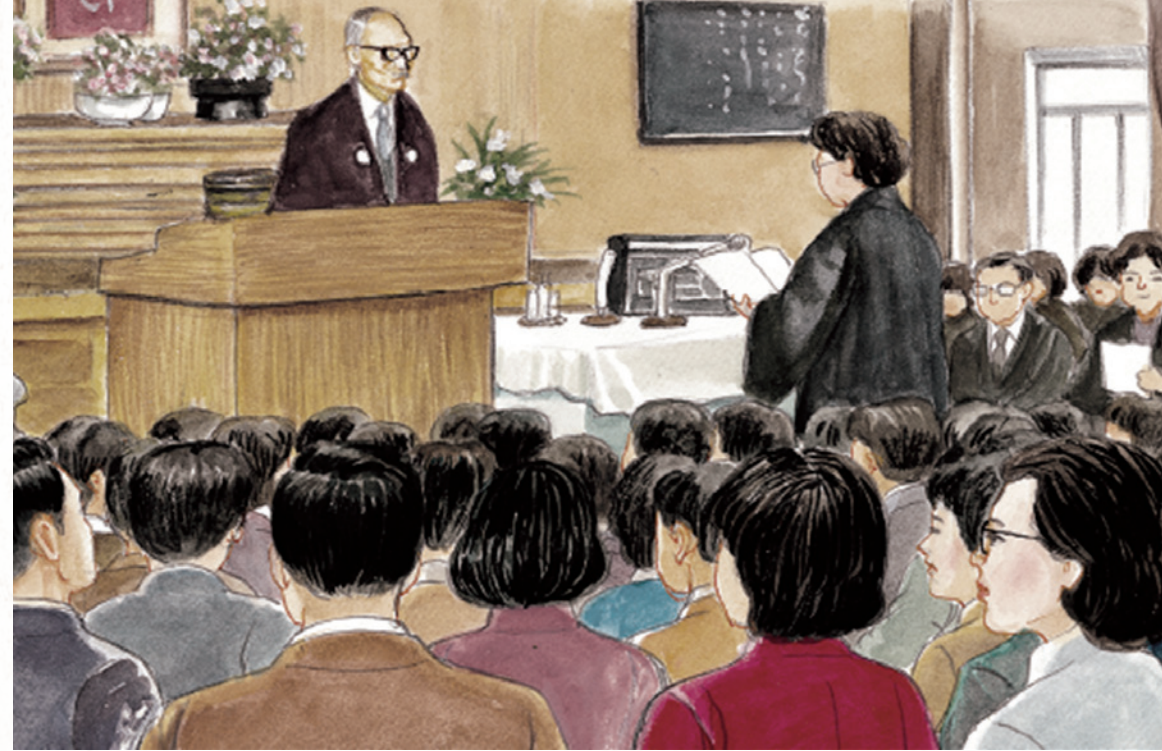
그해 4월 대성사는 경상남도 밀양읍의 지방주사로 승진했다. 전쟁 초기에 밀양공립농림중학교는 6년제에서 3년제 고등학교로 바뀌었고 대성사는 고등학교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그 와중에도 밀양 심인당에 나가며 수행을 계속하였다.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성사도 유한

한 삶과 생명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즉 육체적인 생명과 정신적인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은 생로병사를 받아야 하는 무상한 생명이고 정신적인 생명은 상락아정의 열반체인 영원한 생명이다. 세상은 이 정신적인 생명체를 모르고 육체적인 생명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죄업을 지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인 생명을 소중히 가꾸어야 할 것이다.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 진리를 향해 나간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정신적인 생명이며, 정신과 육체 또한 떼어 수 없는 관계이다. 정신이 건전해야만 육체도 건전한 것이다.”

삶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의 결과는 결국 믿음을 가지고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한다. 특히 종교의 비밀한 면을 이렇게 강조했다.

“어느 종교에도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다. 수행의 깊이에 따라 그 비법을 닦아 익히거나 자신의 것으로 깨달아 얻게 하는 것이 근본이다. 다른 종교보다 불교에 그 비밀스러운 법이 많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밀교이다.”



삽화= 종조 일대기 (불공잘해라) 중에서

이것은 불교 경전을 살피고 수행한 끝에 대성사가 얻은 지견이다. 이 때문에 불교의 어떤 가르침보다 밀교의 내용이 시대와 맞다고 여겼다. 밀양 심인당에서 대성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졌다. 대성사에게 종교적 질문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묻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들을 대하며 수행을 통해 마음과 육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새로운 인연의 시간이 닥쳤다는 것을 실감했다.

1953년 8월 24일, 심인불교건국참의회원 心印佛敎建國懺悔團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종단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제헌 총회를 열었다. 대구 남산동 심인당에서 열린 이 회의에 대성사는 교도 대

표로 참석하게 된다. 전국의 스승을 대표해서 정사와 전수 23명, 그리고 교도 대표 50명이 모여 종단의 미래를 도모한 회의였다.

회의를 통해 심인불교건국참회원이란 간판은 ‘대한불교진각종 심인불교보살회 大韓佛敎眞覺宗 心印佛敎 菩薩會’로 바뀐다. 종단의 최고의 결기관으로 인회 印會가 구성되고 회당 대종사가 회장으로 추대됐다. 종단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대성사의 조언과 함께 중지를 모아 계율에 해당하는 인법 印法이 제정되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게 된다.

심인불교 心印佛敎의 심인이란 불심인 佛心印을 말하며, 마음속의 부처이다. 진리는 불심인의 진리를 뜻한다고 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심인이야말로 본심 本心이며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이니 일체 인과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심인불교의 중지이다.

종회와 종법과 수행체계가 갖춰지면서 진각종은 큰 도약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풍이 불면 역풍도 함께 찾아오는 것이 피할 길 없는 세상 이치이다. 순조로울 것 같던 출발은 인간적인 반발과 저항도 겪었다. 참회원을 고수하는 이들도 있었고, 인법을 내세워 사람을 재단하는 감정적인 반발도 일어났다.

결국 세상의 이목을 끈 사건이 터졌다. 원망과 대립은 법적인 문제로 비화돼 소위 ‘심인불교 사건’이 벌어졌다. 회당 대종사의 구속까지 이어진 사건은 결국 창종 과정에서 빚어진 인간적인 대립과 금전 문제가 화근이 된 것이다. 결국 이듬해인 1954년 포항과 울산 등지의 참회원과 교도 일부가 떨어져 나가 ‘대한불교진언종참회당교도회 유지 재단법인 大韓佛敎眞言宗懺悔堂敎徒會 維持財團法’을 결성한다. 또 하나의 밀교종단인 진언종 眞言宗이 가지를 쳐 나갔다.

한국 밀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자 대성사는 오래도록 몸담았던 천직에서 물러났다. 1953년 9월 30일 사직원을 내고 교직과 공직 생활을 접은 것이다. 개인적인 아쉬움과 안정적인 길을 떨치고 시대가 요구하는 미지의 길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2일 정사 후보로 임용되어 막 문을 연 서울 심인당에서 교화에 나선다. 서울심인당은 지방의 터전을 서울로 옮기기 위해 종단의 명운을 걸고 있던 곳이라 그 중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대성사는 스승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불교에 귀의하는 첫걸음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삼보^{三寶}는 불·법·승을 일컫는데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는 보배와 같다는 의미에서 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佛’은 깨친 이를 의미하는 ‘붓다(buddha)’를 한자로 음을 따서 불타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불타를 줄여서 불이라고 한 것인데 부처라는 우리말도 불타라는 한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부처는 인생과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또한 끝없이 무한한 자비원력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는 원만한 깨달은 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불을 자각각타^{自覺覺他}가 원만한 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란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남들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받들어 모시며 닮아가겠다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귀의를 나타내는 불보에 대한 찬탄입니다.

‘법^法’은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dharma)’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말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일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도 법이라고 합니다. 불교철학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도 합

니다. 그러나 불법승 삼보에서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 교법인 팔만대장경도 법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 따라 수행하여 진리를 증득할 수 있고 구경의 해탈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귀의 가운데에서 ‘자귀의법 당원중생 십입경장 지혜여해^{自歸依法 當願衆生 深入經藏 智慧如海}’라는 법보에 대한 귀의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오니 마땅히 중생으로서 경장에 깊이 들어 지혜가 바다같이 넓어지기를 원하옵니다.’라는 뜻인데 경장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 놓은 것으로써 이를 통하여 지혜가 무한히 넓어지며 마침내는 열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보라고 합니다.

‘승^僧’은 산스크리트어 ‘상가(Samgha)’의 음역으로 ‘화합하는 무리^{和合衆}’라고 의역됩니다. 한자로는 승가^{僧伽}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승가라고 하면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출가한 스님들 뿐 아니라 재가 신도도 포함하여야 완전한 승가가 됩니다. 즉, 비구와 비구니, 남자 신도인 우바새, 그리고 여자 신도인 우바이의 4그룹을 모두 일컬어 승가라고 했습니다. 이 4그룹이 바로 사부대중이라는 것인데 서로 이

끌고 받들면서 잘 굴러가야 참된 승가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사이엔가 출가승들만이 절을 지키다 보니 승가라고 하면 출가한 스님의 집단만을 일컫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의 승가, 즉 상가는 화합중이라는 의역에서 보듯이 출가한 스님들은 불법을 잘 공부하여 재가 신자들을 가르치고 이끌며 재가 신자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보시으로써 스님들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면서 화합하던 집단입니다. 이런 관계가 화합으로 잘 유지되어야 진정한 승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삼귀의계에 ‘자귀의불 당원중생 통리대중 일체무애 自歸依佛 當願衆生 通理大眾 一切無碍’라는 것이 있는데 뜻을 풀이하자면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오니 마땅히 원하건대 대중과 잘 소통하고 화합하여 일체의 장애가 없어지기를 서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총지종이나 진각종에서 총무원에 해당하는 부서를 통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화엄경에 나오는 삼귀의계의 승보에 대한 귀의를 나타내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종단 종조이신 원정대성사님께서 약간 세속적인 총무원이라는 말 대신에 통리원이라고 이름 붙이신 것은 참으로 탁월한 식견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통리원의 역할은 모든 구성원을 잘 소통하게 하여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합의 무리를 의미하는 상가의 역



불교총지종 전주 흥국사

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화합은 승단 건립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6가지를 들어 어떻게 화합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주로 출가승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승가의 화합을 위한 매우 귀중한 지침서입니다.

(1) 전화동해^{見和同解}는 같이 모인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공동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화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종지를 지니고 불교의 발전을 위하여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2) 제화동수^{戒和同修}는 법제상으로 사람마다 평등해야 하는 것으

로 승가내의 규율의 통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승가의 규율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3) 이화동균^{利和同均}은 경제상으로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시 받은 시주물이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공정하게 쓰여야 합니다.

(4) 의화동열^{意和同悅}은 정신적으로 뜻이 맞고 의기투합해야 사람들이 기뻐하며 마음의 열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5) 구화무쟁^{口和無諍}은 언어상으로 화목하여 다툼이 없는 언어상의 친절을 말합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로써 승가의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6) 신화동주^{身和同住}는 행위상으로 남을 침범하지 않고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위가 있다고 거만하고 갑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승가의 화합을 깨는 사람입니다. 승가에서의 직책은 불교를 널리 알리고 지키기 위하여 맡기는 직책인데 이를 착각하여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으스스대면 이것 또한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중 벼슬은 닭 벼슬보다도 못하다는 속담이 바로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가는 화합의 바탕 위에 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닦아 보리를 얻게 하는 큰 용광로와 같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모시던 아난

다가 승가의 화합된 모습을 보고 감탄하여 부처님에게 “부처님! 이러한 도반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불도의 절반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화합된 도반들과 함께 하는 것은 불도를 다 이룬 것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합하는 승가는 이처럼 우리가 열반을 증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승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교주인 부처님과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인 법, 그리고 이를 믿고 따르며 법을 지키는 승가의 세 가지 모두를 보배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삼보는 우리가 지혜를 얻어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하나도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은 좋은 의사이고 법은 오묘한 약이고 승가는 환자를 돌보는 병원과 같아서 병을 앓는 환자에게는 세 가지 인연이 동시에 갖추어져야만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인생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승의 세 가지 힘이 합쳐져야만 괴로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자재한 해탈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승을 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구조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우리는 생각과 감정, 욕구를 마음이라고 한다. 또 육체에 대한 정신의 개념처럼 몸에 대한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마음을 육체와 정신과 욕망을 담는 그릇으로 정의하고 설명해보려 한다. 즉 ‘나’를 담는 그릇으로 정의해보고자 한다.

마음, 나를 담는 그릇

보통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방식은 육체적인 감각과 정신적인 감정, 생각을 통해서다. 감각을 통해 나의 육체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감정과 생각을 통해 정신적인 한계를 인식한다. 보통 ‘나’라고 하면 이렇게 인식된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나’를 인식하지만, 이외에 또 다른 ‘나’도 존재한다. 바로 욕망이다.

인간에게는 감각, 감정, 생각 세 가지 요소 외에 욕망이라는 다른 성질의 요소가 존재한다. 이는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다거나, 일어나는 생각을 부정하는 또 다른 나를 인지한다거나, 몸에 고통이 왔을 때 단지 고통스럽지만은 않은 나를 발견했을 때 알 수 있다. 이처럼 문득 느껴지는 ‘실체로서의 나’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마음’이라고 정의해보기로 한다.

우리는 마음을 대접과 같은 그릇에 비유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마음을 일반적인 ‘나’의 요소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는 것이다. 먼저 대접같이 생긴 그릇에 마음의 네 가지 요소(감각, 감정, 생각+욕망)가 담겨 있다고 본다. 세 가지 기본요소인 감각, 감정, 생각은 개인에 따라 모양, 크기, 색깔, 재질 개수가 모두 다르다. 여기에 플러스 요소인 욕망은 액체의 형태를 띠고 그릇 전체에 퍼져있다고 본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밥에 있는 국물은 욕망이고, 국전더기는 감각, 감정, 생각이라 보면 된다.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감각, 감정, 생각 : 대접 안에 모양, 크기, 색깔 등 개인에 따라 다름
2. 욕망 : 대접 전체에 담겨 있는 액체, 개인에 따라 양이 다름
3. 마음 : 대접 같은 그릇, 외부와의 경계 즉, 나의 경계
※ 나의 경계로서 마음을 제외한 네 가지 요소(감각, 감정, 생각, 욕망)가 모여 ‘나’라는 개인적인 특성, 즉 성격을 이룬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마음의 요소를 ‘나’라고 생각한다. 감각, 감정, 생각, 욕망을 사용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아_{自我}’라고 여긴다. 이런 자아의 개념은 ‘진아_{眞我}’에 대



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아^{假我}’라고 하고, 자아^{自我}와 가아^{假我}를 합쳐 유아^{有我}라고 하며 이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무아^{無我}를 상정한다.

우주 그 자체, 무아와 무심

진아^{眞我}는 깨어있는 나를 의미한다. 깨어있다는 것은 나의 경계에 있다는 의미이며, 나의 경계에서 자아를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이러한 알아차림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곧 마음챙김이라 할 수 있다. 즉 알아차림은 자각이고 마음챙김은 자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경계 혹은 나의 한계점인 마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무아^{無我}가 되기 위함이다. 무아^{無我}는 곧 무심^{無心}이 된다.

무아^{無我}란 나의 경계인 마음이 끝 간 데 없이 넓어져서 무한^{無限}해지는 것이다. 무한해지는 순간 결국 나의 경계인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마음이 사라지면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지고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된다. 우주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 때, 나의 특성(요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육체와 육체에 의해 존재하는 정신(감정, 생각)과 욕망은 오롯이 남아있다. 그

러나 경계가 없어진 나는 이러한 특성(요소)에 휘둘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곧 걸림 없이 마음을 쓰는 것이다.

“업장^{業障}을 참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 끝없는 세월 동안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탓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악업이 한량없고 끝이 없을 것이다. 만일 그 나쁜 업이 어떤 형체가 남아 있다면 가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몸과 말과 생각의 청정한 업으로 법계에 두루찬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 앞에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며 항상 청정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머물겠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야만 나의 참회가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공계와 중생의 세계와 중생의 업과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끊임없이 행해도 몸과 말과 생각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화엄경, 華嚴經』

비유하면 금색화^{金色花} 천근이 진금^{眞金} 한냥 무게만 못한 것처럼,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적은 선의 덕만 못하며, 부처님을 상대하여
거짓을 행하는 것은 장님이 자기가 남을 보지 못하므로 남도 자
기의 나쁜 일을 못 보는 줄 아는 것과 같으니, 부처님 앞에서 대
중에 참회하라. 죄는 자성이 본래 없는 까닭에 반드시 좋은 인연
을 좇아서 소멸하느니라.

비록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훗날에 드러내어 참회하고 다시 행
동하지 말아야 한다. 흐린 물에 밝은 구슬을 두면 구슬의 위력으
로 물이 곧 맑아지고, 연기와 구름이 없어지면 달이 곧 밝아지는
것이니, 악을 짓고 참회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열반경, 涅槃經』불교총전 발췌



낙동강 앞에서 등지가 가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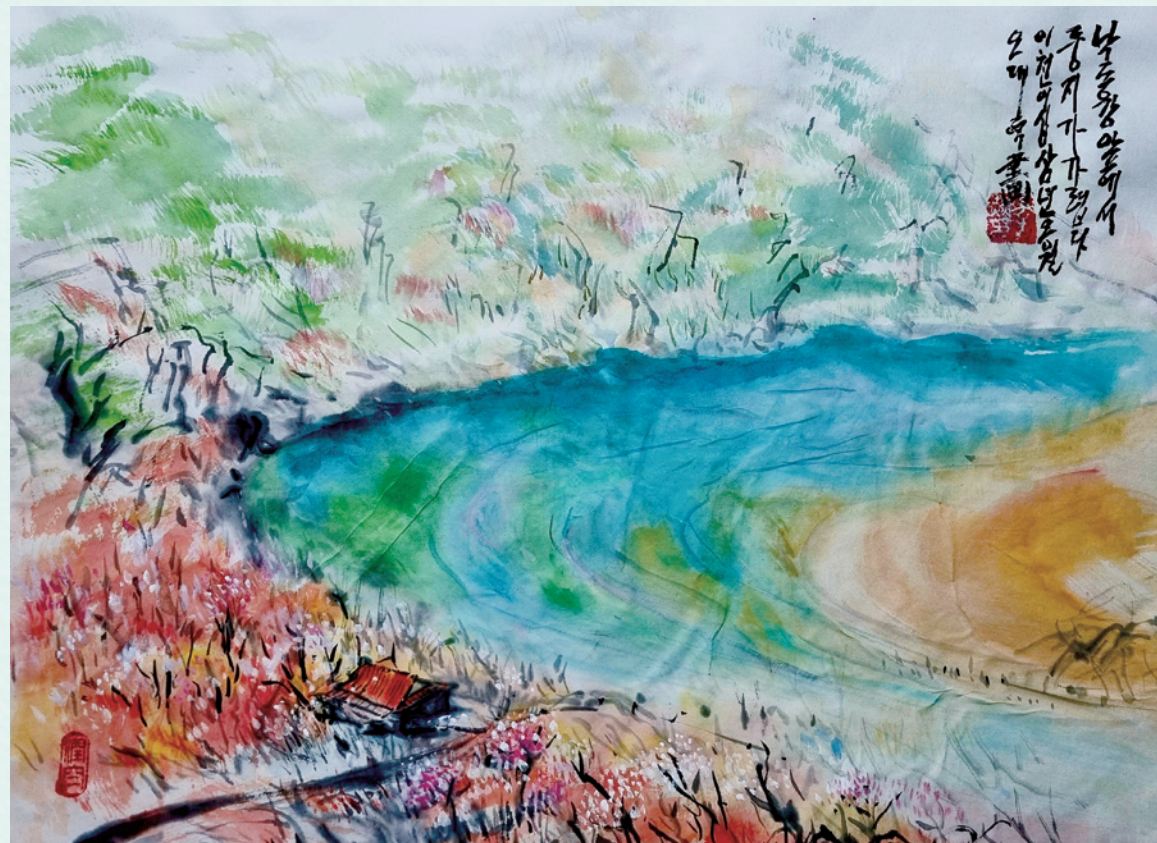
오대혁

동국대학교 고전문학 전공
문화비평가
논문 및 저서 <원효설화와 미학>
<금오신화와 한국소설의 기원>
공동시집<시의 끈을 풀다>

섬에서 자라 물으로 기어오른 나는
진달래 지천인 강물 앞에만 서면
비린내 훅 끼친다 바다도 아닌데
언제부턴가 나의 숲은 넘실대는 에메랄드빛

사는 게 단막극 조연 같아서 강물 앞에만 서면
별 떨어처럼 밤이면 짙레꽃 쏟아져 내리는 섬
섬에 두고 온 사랑 못갖춘마디로
쭈욱 구역질로 올라온다

낙동강 바람은 싱겁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해거름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림자로 드러누운 산이 참 곱기도 한데
강물 앞에서 내 등지는 슬그머니 가렵다



*그림은 오대혁 시인이 그린 낙동강 풍경.

조선 왕실의 불화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위드다르마 편집실

약사불藥師佛은 과거 아직 부처가 되지 않은 보살이었을 때 12가지의 소원을 세웠습니다. 아픈 자의 질병을 치유하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하게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고, 반드시 그 바람을 이루리라 맹세했습니다. 약사불은 오랜 시간 쌓은 공덕으로 부처가 되었고, 간절했던 서원誓願으로 인해 병든 자들을 구원하는 부처로 오랜 시간 신앙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보물(옛 지정번호 보물 제2012호)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처럼 불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심혈을 다한 대작 불사

이 불화는 1565년, 명종(明宗, 재위1545-1567)의 어머니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가 회암사 중수 기념으로 발원하여 전국 사찰에 나누어준 불화 400점 중 하나입니다. 문정왕후는 억불숭유로 기억되는 조선시대에 불교를 중흥시켰던 몇 안 되는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재화가 있었기에 아들인 명종의 만수무강과 왕비의 임신, 왕손 생산을 기원하며 석가모니 불·약사불·미륵불·아미타불을 그린 불화를 각각 금니로 50점, 채색화로 50점씩 모두 400점이나 동시에 조성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크기는 작지만 굵고 가는 선을 적절히 사용하여 채색 없이 필선만으로 약사불과 보살의 찬란한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유려하고 정교한 필선은 상당한 기량을 가진 화가가 불화를 그렸음을 알려줍니다.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왕실 최고 권력자인 대왕대비,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 나암 보우, 그리고 왕실의 화원까지 모두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기념비적 대작 불사의 한 조각입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회암사와 400점의 불화

손자인 순회세자를 잃자 문정왕후는 복을 기원하기 위해 회암사의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준비했습니다. 무차대회는 승려나 속인 가리지 않고 일반대중에게 베푸는 법회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대중에게 그 공덕이 두루 미치길 바라며 열리는 일종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의 병환으로 무차대회는 중단되었고, 그녀의 죽음으로 보우가 잡혀가자 전국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변창했던 회암사는 불태워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1565년 1월 400점의 불화를 조성했을 당시에는 4개월도 못 되어서 이렇게 허망하게 모든 것이 사라질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불사였고 사찰이었지만, 구심점이 없어지자 거의 영광은 한순간에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문정왕후가 발원한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TERU(조세훈)

평범한 회사원, 대중음악연구소 음악평론가 제의를
받을만큼 음악과 영화를 관하는데 능하다.
콘텐츠 소개 프로그램 올레티비<파본자들> 출연
500여명 구독자 보유 브런치 작가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조선 1565년, 비단에 금니, 54.2×29.7cm, 보물, 덕수3324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유수란 제공

불화 역시 400점 가운데 단 6점만 전하고 있습니다. 4점은 일본
에, 1점은 미국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금니가 아닌 채색으
로 그린 불화도 있습니다. 보물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유일
하게 국내에 전하는 귀중한 불화입니다.



#1 스타워즈 6부작(1977~2005)

#2 그녀(Her, 2013)

#3 사랑의 블랙홀(1993)

#4 매트릭스(1999)

#5 아메리칸 뷰티(1999)

#6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2003)

#7 천년을 흐르는 사랑(2006)

#8 위대한 레보스키(1998)

#9 파이트 클럽(1999)

#10 옛지 오브 투모로우(2014)

#8 위대한 레보스키 (The Big Lebowski, 1998)

감독 코엔 형제

주인공 레보스키(제프 브리지스)는 스스로를 듀드(The Dude, 녀석, 형씨, 인마)라고 칭하고 다닌다. 그는 한량처럼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선승禪僧과 유사한 행보를 보인다. 그는 승복처럼 하루 종일 헐렁헐렁한 목욕 가운을 입고, 법명처럼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름에는 물질주의를 배격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게으름뱅이로 보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외곬으로 영적인 집중의 예로 본다.

그는 볼링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 충실한 삶을 보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의 목표로 향하도록 산만함과 혼란을 피한다. 이는 고타마 싯다르타가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과 방향성이 일치한다.

영화는 듀드가 동명이인인 억만장자 “빅 레보스키”(데이비드 허들스톤)의 대저택으로 찾아가 자신의 양탄자를 더럽힌 값을 변상해 달라고 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영화는 듀드의 허풍대로 진행된다. 한마디로 <위대한 레보스키>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함이지만, 그 주제는 욕망이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붓다의 ‘사성제四聖諦’에 기초했다.

이는 임제종의 <간화선看話禪>처럼 읽힌다. 이것을 ‘공안公案’이라고도 하는데 논리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상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공안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들면 들수록 답에서 점점 멀어진다. 선종은 ‘무無’의 불교라 불리는데, 철저하게 무가 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몸으로 직접 가르쳐준다. 생각한 시점에서 진 것이다. 언어로는 가르침을 모두 전할 수 없다는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행동으로 표현한 셈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수행자에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온다.

흥미롭게도 주인공 레보스키를 연기한 제프 브리지스는 불교 신자이며, 2012년 켄 마스터(선승) 버니 글래스먼과 함께 <The Dude And The Zen Master>라는 불교서적을 공동 집필한 바 있다. 그리고 감독인 에단 코엔은 프린스턴 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다. 그래서인지 영화 내용은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의 영향이 짙게 배어있다. 그 책은 부처님처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 책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행복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로 나라 안이 어지럽다. 전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쏟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최근 한 달 사이에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피해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놓고도 정쟁으로 치닫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생존을 위협받게 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정책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이는 것 같으니 말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치에 기대고 정치인에게 매달려 본 힘없는 사람들은 안다.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열에 일고여덟 공허한 메아리,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았음을.

엊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산불도 많았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총 476건, 소실된 면적은 4,643.46ha나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756건의 50%를 훌쩍 넘어서는 역대 최대 수치이다. 합천 산불에 이어 지난 4월 4일에는 충남 홍성, 대전-금산, 전남 함평, 순천에서, 그리고 11일에는 강릉에서 또다시 산불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되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잿더미, 그 절망의 끝에 희망이라는 꽃이 피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자칫 사상 초유의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불길을 막아낸 소방관들의 사투가, 시시각각 안타까움으로 빠른 진화를 염원했던 많은 이들의 기도가,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는 자원봉사자들의 땀방울이, 각계각층에서 보내오는 성금과 성품에 담긴 온정의 손길이 만들어내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의 기적, 그것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이 되어 주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은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등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제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 속에 차일피일 지지부진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2년 한시 특별법도 발표됐다. 이 특별법은 전세 사기를 당해 살던 집이 경매 중이거나 내쫓길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산불로 집을 잃었든, 전세 사기를 당해 거리로 내쫓기게 되었든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결국 고통은 그들의 몫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또 어느 별의 이야기인가. 행정부 정무직(장·차관급) 및 1급 공무원, 국립대학 총장 및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등 고위 공직자 2,037명의 평균 재산이 20억 원에 육박한다.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31.3%. 전체 신고자 중 73.6%가 재산이 늘어났는데, 평균 증가액이 2,981만 원이고 절반은 1억 이상이라고 한다. 대다수가 공시가격 증가분을 올리기 때문에 실제 재산 규모는 신고 금액보다 클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5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4명을 제외한 296명의 평균 재산도 25억 원을 넘었으며 그중 258명(87.2%) 역시 1년 전보다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결이 어찌면 이리도 다르고, 그 거리는 어찌면 이리도 멀고 아득한지. 전세 사기로, 산불 피해로, 또는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 삶과 죽음을 오가는 깊고 어두운 나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시민들로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 꿈도 못 꿀 일이다. 이미 어마어마한 재력을 쌓았으되 그것을 지키고 불리는 재주 또한 비상한 사람들에게 소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통렬하게 함께 울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단지 나처럼 우매한 몇몇의 바람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문득문득 궁금해지곤 한다. 피땀으로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희사하는 소시민들은 많지만 수십 수백억 재산을 갖고도



그 일부나마 선뜻 쾌척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은 왜 그리도 찾기 힘든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들에게 변명거리가 없을 리 없다.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인의 기부 행위를 금하기 때문이란 다. 공직선거법에서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정치인의 기부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데 말이다. 방패막이용 아전인수(我田引水)가 아니라면 기부 행위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감쪽같이 감행하면 될 텐데.

굵은 지팡이는 그림자도 굵어 비친다고 했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것도 그 때문이다.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상처와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제 주머니 불리기에 급급한 사람, 안하무인 기고만장 부른 배 두드리며 매화타령에 하루해가 짧은 사람... 한 술 더 떠서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도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두둑한 뱃심까지 겸비한 사람이 수두룩하니. 정치가 민초의 생존과 직결됐다는 사실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젓밥에만 눈먼 이들이라면 조선의 실학자 성호 이익 선생이 콩잎 반찬 먹는 사람의 근심을 기록했다는 뜻을 지닌 <곽우록>에서 설파한 ‘정치인이 잘못하면 서민은 죽임을 당하여 간과 뇌가 으깨어져 땅바

닥에 뒹군다’라는 말을 깊이 되새겨 볼 일이다.

“처음도 참되게 하고 중간도 참되게 하고 그 끝도 항상 변함없이 참되게 하라.”라는 『대품반야경』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지도자가 초심을 지키며 책임을 다할 때 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쌓인다. 설령 고초를 겪게 되더라도 나와,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때 두려움조차 용기가 된다는 것을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몸소 보여 주고 있지 않은가.

“나는 평생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 왔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이제 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소한 울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여.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외로 망명할 것이라는 전 세계인의 예상을 깨고 취임사에서 약속한 대로 우크라이나에 남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항전 중이다. 30%대에 지나지 않던 그의 지지율이 90%를 넘어서기까지, 2022년 처칠 리더십상과 케네디 용기상을 수상하기까지 그가 국민들과 함께 흘렸을 땀과 눈물이 부럽기만 한 요즈음이다.

애야 좀 더 있다 가려문

김형술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不有田家雨 농가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들
行人得久淹 갈 사람을 오래도록 붙잡아 두었겠나
喜逢子孫醉 자식을 만나서 기뻐 취하고
睡過卯時甘 묘시가 넘도록 달게 잤더니
風迴花撲簾 냇물 불어 개구리밥 보에까지 불고
吳詩殊未就 바람 불어 꽃잎은 주렴을 치는구나.
吳詩殊未就 내 시가 아직 안 되었다
莫謾整歸驂 자꾸만 타고 갈 말 챙기지 말렴

- 김시보(1658~1734), <모주집(茅洲集)> 권8

이 시는 모주^{茅洲} 김시보^(金時保, 1658~1734)의 작품입니다.

시의 제목과 수련^{首聯}의 내용을 보면 시집갔던 시인의 큰딸아이가 무슨 일인가로 친정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출가외인^{出嫁外人}이란 말이 있듯 조선시대 시집간 여성은 친정에 발걸음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기에 친정을 찾은 딸아이는 더없이 반갑고 예쁩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쁜 마음에 술잔을 들었고, 그렇게 기분 좋게 늦은 단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시의 후반부입니다. 간밤 비가 아침까지 계속되어 보에까지 개구리밥이 불고, 바람마저 불어 흩날리는 꽃잎이 주렴을 칩니다. 친정을 찾은 딸아이는 아마도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에게 허락된 친정나들이는 하룻밤을 넘기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 상황이었다면 당일에 시집으로 돌아가야 했을 텐데 비 때문에 하루를 유숙하게 되었으니 큰딸아이로서는 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졸였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말을 서둘러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서둘러 돌아갈 채비를 하는 딸아이, 그 마음을 십분 알면서도 아버지는 어여쁜 딸아이를 선뜻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를 대며 마음 급한 딸아이를 붙잡습니다. ‘네가 떠난다 하니 내가 의당 전송시를 지어야 할 텐데, 아직도 시가 완성되지 않았구나. 조금만 더 있으려무나’하고 말합니다. 과연 시인은 시를 못 짓고 있었던 것일까요? 안 짓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작품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고금에도 변함없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뜻한 사랑이 진실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딸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애뜻한 사랑이 꾸밈없이 진실하게 그려져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가족이란 우리 모두에게 더 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오히려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소중함을 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던 관계맺음의 방식을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요 입성기 ①

몇 년 전 한참 무한도전이라는 tv프로그램에 푹 빠져서 6명의 형제들의 좌충우돌 스토리에 배꼽 잡으며 깔깔거리고 웃고 감동에 울었던 적이 있었다. 두 손을 펼치며 무한 ~ 도전! 을 외치던 장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만큼 무한도전은 보고 또 보고 싶은 프로그램 일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에는 동요시장을 배경으로 촬영한 내용이 방송되었는데, 패션피플인 G-DRAGON이 나왔다. 패션 화보 촬영을 위해 동요시장을 다른 멤버와 함께 둘러보며 옷들을 구입하는 장면이 이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동네 바보형 같던 친구들에게 멋진 오빠가 놀러 와서 훌륭한 비주얼을 뽐내며 다니는 것 같아 놀랐던 기억이 난다.

화면 속에선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들은 그곳에 쏙 그리고 앉아 옷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다. 나는 셀럽들이 찾던 옷을 뒤지는 모습을 보며 “우와~ 어디서 저리도 많은 옷들을 가져 왔을꼬?” 내심 혀를 내둘렀고, 그 많은 옷들 중에서도 보석을 건지는

잘 생긴 오빠의 센스에 “역시”를 내뱉었다. 그랬던 동묘를 지인과 함께 오게 되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저 동네이름인줄 알았던 동묘는 우리의 아픈 과거를 품은 동네였다. 동묘는 동관왕묘의 준말로 동쪽에 있는 관왕묘였고 관왕묘는 중국 장수 관우의 조각상을 두고 제사를 올리는 사당이었다고 한다. 임진왜란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명나라의 명으로 조선 제14대 왕이었던 선조때 지어졌다.

동묘 안으로 들어서니 관우와 부하 장군들의 조각상이 떡하니 서있다. 허나 관리가 소홀한 탓인지 귀곡산장 같은 느낌이 물씬 풍겨온다. 단청은 낡아서 단아한 모양새도 아니요, 한지를 덧바른 문풍지들은 손가락으로 연신 찢러냈는지 구멍이 숭숭 나있었다.

이 황금 땅에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라니,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 떠올려서 애국심을 기를 필요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안하는 것 같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끼리 의미 없는 토론을 주고받으며 한 바퀴 휩 둘러보고 나왔다. 그래도 사당 안으로 들어가니 고풍스러운 정원과 나무의 모습들이 가득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풍경이었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장애인 협업 불사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불교충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
 <E美지> <숨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요즘은 사회 전반적으로 협업이 새로운 트렌드이다. 콜라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함께 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탈무드>에 나오는 시각장애와 지체장애가 힘을 합해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사례를 종종 든다.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를 보면서 손이 닿지 않아 한탄하자 시각장애 친구가 내가 엮어 줄테니 사과를 따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여 합심으로 맛있는 사과를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협동 이야기가 있다. 고려 제7대 목종(穆宗, 980~1009년)때 강원도 철원 보개산 심원사라는 절에서 대중불사(大鐘佛事)를 하게 되어 스님들이 시주를 걷고 있었다. 각 고을 부인네들은 쌀 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마솥과 주발대접과 젓가락 부러진 것 등을 찾아내서 열심히 시주하였다.

이때 보개산 밑 대광리에 시각장애가 있는 이덕기와 지체장애가 있는 박춘식이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죽마고우였다. 그들은 금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다음 생에는 건강하



게 태어나자고 다짐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며 살았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여보시오. 시주님네 적선공덕 많이 하소. 한 물건 시주하면 만 배가 생기는 일, 부처님 가피로 모든 재앙 소멸하고 현생에 복을 얻어 수명장수 이루소서.”라고 외치고 지나갔다. 덕기가 이 소리를 듣고는 시주하고 싶어졌지만 가난하여 시주할 쌀도, 쇠붙이도 없었다. 그들은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다가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 화주승처

럼 길거리에 나가서 시주를 걷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지만 한 사람은 앞을 못보고 또 한 사람은 걷지를 못하니 불가능한 일이 었다.

“좋은 방법이 있다. 두 몸이 한 몸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너는 걸음을 걷지 못하여도 눈이 성하고 나는 보지 못하여도 다리가 성하니 내가 너를 업고 다니면 되지 않겠니?”

“맞다.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네가 다니면서 문전구걸을 하면 곧 시주를 거둘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들은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3년 동안 방방곡곡 다니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쇠붙이를 모아 화주승에게 바치니 화주승이 감격하여 그들을 더욱 격려하고 감싸주었다. 종이 완성되고 절은 중수되어 회향재^{重修會向齋}와 대종^{大鐘} 준공식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두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평지도 아닌 태산준령을 넘어 보개 산 심원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연천으로 가자면 계곡을 끼고 가기 때문에 고개가 없지만 물을 건널 수 없으므로 대광리에서 바로 태산준령을 넘어 오르기로 했다. 산에 오르니 구슬 같은 땀 방울이 비오듯 떨어지고 입에서는 불꽃처럼 달구어진 숨결이 가 습턱을 쿡쿡 막았지만 화주승이 가르쳐 준 나무대자비 관세음보

살을 한없이 부르며 간신히 그 산 마루에 올랐다. 그때 춘식이가 외쳤다.

“저기 저 부처님을 봐라”

“어디, 부처님이 어디 있어?”

부처님은 허공 중천 오색구름에 싸여 등실등실 큰 빛을 그들이 사는 마을에 쏟으며 하늘 높이 올라갔다. 덕기와 춘식은 날이 밝도록 부처님께 절하며 서로 붙들고 올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그 큰 재를 부처님을 뵈 고개라 하여 불견령^{佛見嶺}, 부처님의 광명이 크게 내려 쏟아 비친 덕기, 춘식이 사는 마을을 대광리^{大光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보개산 심원사 대종불사기^{寶蓋山 深遠寺 大鐘佛事記}에 나오는 역사이다. 그런데 설화적 요소가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 이덕기가 눈을 뜨고, 지체장애인 박춘식이 별떡 일어섰다는 이야기 때문인데 이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부처님을 접하고 그렇게 느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진짜 있었던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두 명의 장애인 불사^{佛事} 이야기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둘이 힘을 모으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리틀 붓다 키아누 리브스

남해 정사
단음사 주교

영화배우 키아누 리브스를 이야기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와 ‘존윅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키아누 리브스가 젊은 시절 영화 ‘리틀 붓다’에서 부처님 역할로 나왔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키아누 리브스는 ‘리틀 붓다’ 촬영을 앞두고 명상과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네팔을 여행하며 스님을 만나 말씀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는 영화 ‘존윅’ 홍보를 위해 한국에 내한했을 때 인터뷰에서 “불교 신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윤회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제가 하는 일에 관해서도 늘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런 것들이 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라고 말하였으며, ‘리틀 붓다’ 개봉 후 13년이 지난 시점에도 티베트의 사찰로 가서 3개월간 수행한 바 있다. 자신의 반려견 한 마리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영화 ‘존윅’을 생각하면, 평소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키아누 리브스가 주인공인 존 윅을 연기하기에 제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키아누 리브스는 한국 돈으로 6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오래도록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과 10년 넘게 신고 있던 신발이 떨어져 테이프로 감아놓은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찍힌 일로 유명하다. 그리고 허름한 복장으로 지하철을 타고 있는 모습이 자주 팬들에게 목격되었으며, 뉴욕포스트는 키아누 리브스가 영화 ‘매트릭스’ 신작으로 벌어들인 수익 70%, 3150만 달러(약 400억원)를 백혈병 치료법 연구에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키아누 리브스의 기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기부가 삶의 일부라는 것은 지속성에서 확인된다. 그는 ‘매트릭스’ 1~3편을 통해 출연료 및 성과급으로 2억 6000만 달러 이상을 벌였는데 그때도 이미 백혈병 환자, 어린이 암 환자,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보냈고 애초에 그 발생을 예방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소아암과 백혈병 연구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그가 소아암, 백혈병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에는 동생 킴 리브스가 영향을 끼쳤다. 키아누 리브스가 세 살때 아버지는 홀로 떠났고,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힘든 생활을 했다. 가난으로 인해 이사가 잦아 키아누 리브스는 고등학교만 4군데를 다녔다고 한다. 리브스와 킴은 이동이 잦아 친구를 사귄 수 없어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내며 유독 사이가 돈독했는데, 1991년 김이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다. 김의 백혈병은 10년 넘는 치료 끝에 완치되었다.

키아누 리브스는 동생이 완치된 후에도 계속해서 연구에 돈을 보냈고 기부를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키아누 리브스의 기부는 오랜 시간이 지난후인 2009년에야 세상에 알려졌고, 키아누 리브스는 당시 '레이디스 홈' 잡지와 인터뷰에서 “어린이 병원

과 암 연구를 돕는 개인 재단을 지난 5~6년 운영했습니다. 저의 활동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선단체에 제 이름이 거론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냥 단체에 맡기고 있죠. 다만 저의 지명도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도울 겁니다.”라고 말했다.

키아누 리브스의 미담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의 스태프들이 박봉에 고생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출연료를 스스로 삭감해 고생하는 스태프에게 나눠주는가 하면, '매트릭스' 오토바이 액션 장면에 연출한 스텐트 팀 12명에게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선물했고, 올해 개봉한 영화 '존윅 4' 스텐트팀에게는 직접 제작한 롤렉스 서브마이너 시계를 선물로 건넸다고 한다.

키아누 리브스라는 이름은 '산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라는 뜻의 하와이 인디언 말인데, 키아누 리브스는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내한 당시 키아누 리브스가 했던 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을 엿볼 수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하여 모두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태도로 본인 스스로 리를 붓다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사시길 서원한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사)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상임고문
 80여 편의 논문 발표, 20여 권의 저·역서 발간
 〈원효의 판비랑론 기초연구〉 등 3권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승랑,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한국연구재단 10년 대표 연구 성과 선정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인간으로 살면서 아무리 비천하고,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뜻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다. 혹시 죽더라도 내생에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한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冥福을 빈다.”고 말한다. “고인께서 저승에서 복락을 누리시기를, 예禮를 갖추어서 기원합니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당한 듯하고, 평범한 생각의 뒷 구석에도 번뇌가 깔려 있다. ‘유애(有愛, bhava-taṇhā)’라고 불리는 미세한 번뇌다. 유애는 ‘존재하고 싶은 욕망’이다.

“늙으면 죽어야지.” 노인들이 농지거리로 입에 담는 대표적인 거짓말 가운데 하나다. 역사상 최초로 대륙을 통일하여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도 인생 말년이 되자 늙지 않는 명약, 불로초를 찾으려 했다. 인생 말년이라고 하지만, 진시황이 죽은 나이는 만 49세였다. 환갑을 넘기는 사람이 드문 당시였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요절이고, 단명이었다.

불전에서는 생명체가 윤회하는 세계를 세 층위의 여섯 곳으로

구분한다. 세 층위란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삼계三界를 말한다. 욕계는 식욕이나 성욕, 분노와 같은 동물적 감성을 갖는 거친 중생들이 사는 세계이고, 색계는 이런 동물적 욕망을 완전히 끊어서 ‘빛과 같은 몸’을 갖는 고결한 천신들이 살아가는 세계이며, 무색계는 그런 몸조차 사라지고 오직 정신적 삼매의 경지만 지속되는 세계다. 이런 삼계를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면 천상, 인간, 아수라, 아귀, 축생, 지옥의 여섯 곳이 되는데, 이를 육도六道라고 부른다. 이런 육도 이론에 대응시키면, 삼계 가운데 색계와 무색계는 모두 천상에 해당한다.

초기불전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아비달마교학에서는 앞에서 말한 ‘유애’, 즉 ‘존재에 대한 욕망’을 ‘내생에 삼계 가운데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욕계를 포함하여 그 어디에서든 존재하고 싶은 욕망이 ‘유애’의 진정한 의미이리라.

현생에 동물적 감성은 끊었지만, 내생에 그 어딘가에서 고결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수행자의 경우, 그가 도달한 경지에 부합하는 색계나 무색계의 하늘에 태어난다. 호흡을 가다듬어서 선禪을 닦거나,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을 발휘하거나, 먹이와 섹스로 살아가는 욕계의 몸뚱이에 대해 정나미가 떨어

어지는 부정관_{不淨觀}을 완성하여 그 마음이 욕계를 초월하면 내생에 색계에 태어난다. 이런 색계의 천상조차 거칠고 불편하다고 생각될 경우, 마음을 더욱 집중하여 삼매를 추구하면 내생에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다. 모두 윤회의 세계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보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고, 혹시 죽더라도 내생에 어딘가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는 불교 수행자가 근절해야 할 ‘유애’의 번뇌일 뿐이다. 우리에게 유애가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고성제를 철저히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고통이라는 일체개고의 진리를 아직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교의 열반은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윤회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내생에 어딘가에 태어나겠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
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
다.



PART 1. 한국의 풍속

I. 사신

II. 화성원행반차도

III. 무예 24기

IV. 전래동화

V. 시집가는 날

VI. 삼일유가

VII. 조선의 풍속

VIII. 12지신



격구

III. 무예 24기

(The 24 Martial Arts)

조선 정조 때 관군이 익혔던 24가지 궁중 무술을 일컫는 것으
로 자세한 내용은 1790년 발간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그림
과 함께 실려 있다.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되어 있는 24가지 무예
는 장창(長槍), 죽장창(竹長槍), 기창(旗槍), 당파(鎗把), 기창(騎槍), 낭선(狼先), 쌍수도(雙
手刀), 예도(銳刀), 왜검(倭劍), 교전(交戰), 제독검(提督劍), 본국검(本國劍), 쌍검(雙劍), 마상
쌍검(馬上雙劍), 월도(月刀), 마상월도(馬上月刀), 협도(挾刀), 등패(藤牌), 권법(拳法), 곤방(棍
棒), 편곤(鞭棍), 마상편곤(馬上鞭棍), 격구(擊球), 마상재(馬上才)로 각 무술에서 사용
하는 무기와 권법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쌍수도



제독검



등패



마상쌍검

육자의궤 六字儀軌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총지종의 염송은 육자의궤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육자의궤는 육자진언을 중심으로 하는 의궤를 말하며 관세음보살의 진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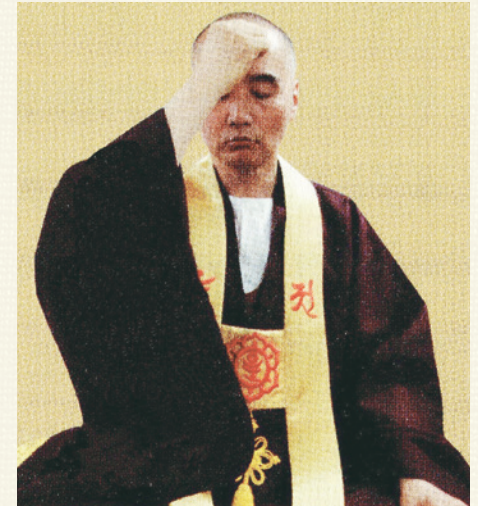
육자의궤는 ‘금강합장’, ‘참회서원’, ‘오대서원’, ‘람자관’, ‘옴람’, ‘옴치림’,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흠’, ‘준제진언’, ‘서원사향’, ‘실지정진’, ‘흠자오인’, ‘회향서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의궤법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진언염송의 기본은 ‘금강정좌’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흐트러짐 없이 바른 자세인 금강정좌의 자세로 앉아 왼손으로 금강권을 결하고 왼쪽무릎에 놓습니다. 이후 참회서원과 오대서원을 마치고 진언염송에 들어가기 전에 ‘대삼매인(大三昧印)’을 결하며 ‘람’자를 관합니다.

이것은 번뇌망상을 없애고 삼매에 들게 하는 밀교의 관법 중의 하나입니다. 나의 정수리위에는 ‘람’자가 있고 보름달 위에 밝은 광명이 비추고 있다고 관(觀)합니다. 수인은 선정인으로 왼손위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두 엄지를 마주 대는 모양입니다.



‘흠’자



흠자오인

이는 부처님과 같은 자세인 몸(身)결인, 입(口)진언, 뜻(意)불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삼밀과 자신의 삼밀이 상응하여 내가 부처님에게 들어가고, 부처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경지를 뜻하며 이를 유가삼밀이라고 합니다.

‘람자관’을 마친 후에는 정법계 진언(淨法界眞言) ‘옴람’을 외웁니다. ‘옴람’은 내 몸과 마음, 온 우주를 맑게 하는 진언입니다. 일체죄업의 장애를 다 소멸시키고, 머무는 곳마다 모두 고요하게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 다음 ‘옴치림’을 외웁니다. ‘옴치림’은 호신진언(護身眞言)으로 ‘진언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진언’이란 뜻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귀신이나 천마(天魔)들의 침입을 막아주고, 일체 재난이 침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지정진을 마친후 취하는 ‘흙자오인’은 ‘흙’이라는 진언종자를 자신의 몸 다섯 군데에 포치^{包置}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손으로 금강권을 하고 마음속으로 ‘흙’자를 관하면서 이마, 왼쪽어깨, 오른쪽어깨, 가슴, 목에 인장^{印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진언염송을 마칠 때 부처님과 중생이 서로 통하여 염송공덕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마장이 소멸되어 모든 일이 성취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01 공갈젓꼭지에 집착하는 아이

02 고기만 먹고 채소는 안먹는 아이

03 잘 먹지 않거나 음식을 입에 물고 있는 아이

04 제자리에서 안먹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

05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06 소변을 참다가 옷에 실수하는 아이

07 씻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08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09 계절과 상황에 안맞는 옷을 입으려는 아이

10 스스로 옷과 신발을 벗지 않으려는 아이

04.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

식사 시간에 잠시도 앉아 있지 않고 장난감을 갖고 논다. 장난감을 못가지고 놀게 하면 TV를 보려고 한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밥을 들고 아이를 따라다니며 밥을 먹이게 된다.

원인

- 1) 식사 시간 부모가 핸드폰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할 경우
- 2) 식사 시간 아이에게 미디어 영상을 보여 주며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
- 3) 부모의 불규칙한 식사 시간으로 아이가 혼란스러운 경우
- 4) 밥 먹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늘 먹여주어 식사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경우
- 5)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은 경우

예) 다이어트 중인 엄마로 인해 아이 혼자 식사할 경우

지도방법

- 1)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나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한다.
- 2)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은 식사 시간 동안 핸드폰 검색이나 영상보기와 같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3) 식사 전에는 숟가락과 포크 놓기 등 밥상 차리기를 돕거나 자신의 음식이 담겼던 그릇을 싱크대에 정리하는 것을 돕게 하는 등, 아이의 발달 연령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준다.
- 4) 식사하는 공간과 놀이하는 공간을 구분한다.

※ 식사 예절

-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 씻기, 식사 준비와 상차림 돕기, 주변 정리하기, 바른 자세로 앉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 음식을 먹는 중에는 웃어른에 대한 예절 지키기,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기, 그릇과 수저를 바르게 사용하기, 음식을 잘 씹어 먹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기, 밥과 반찬은 고루 먹기, 음식물을 입에 넣고 있을 때는 조용히 먹기, 적당한 시간 내에 먹고 즐겁게 대화 나누기
- 음식을 먹는 후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식탁과 주변 정리하기, 사용한 식기 정리하기, 양치하기

딱새에게 보내는 편지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궁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등

동쪽 숲이 아침 햇살로 막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 높은 나무에 작은 새들이 한쪽 방향으로 조랑조랑 앉아 있다. 밤새 떨며 자다가 따스한 해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가슴 아릿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겨울이 되면 작은 새들은 종족이 달라도 서로 무리를 지어 다닌다. 함께 다니면 먹이 발견에도 도움이 되고 밤에는 서로의 체온으로 한뼉잠을 견디어 낼 수 있기 때문이란단다.

그런데 벌레가 주식인 딱새는 무리 지어 다니는 일이 없다. 겨울에는 작은 열매를 먹기도 하지만 아무튼 딱새는 천성이 외로운 사냥꾼이다. 그런데 이 꼬마 사냥꾼은 참 기특한 일을 한다.

어느 해 여름이었다. 옆집 처마 밑으로 딱새가 부지런히 들락거린다. 그런데 그 집 뒷마루에 삐꾸기 녀석이 앉아있다. 수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망원경으로 살폈다. 삐꾸기가 처마 밑으로 사라지더니 잠시 후에 알을 몇 개 물고 나온다. 그리고 고개를 하늘로 치켜들고 알을 연거푸 통째로 삼킨다.

삐꾸기 눈알이 번뜩인다. 제 몸뚱이의 반의반도 되지 않는 딱

새네 등지에 숨어들어 도둑 알을 낳는다. 그리고는 딱새 알을 모조리 먹어치운다. 딱새는 알을 빼앗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원수’의 새끼를 기르느라 온갖 수고를 다한다. 아니, 도대체 이런 만행이 용인되는 곳이 생태계란 말인가.

그러나 생각해보니 삐꾸기의 ‘뽀뽀한’ 짓은 사람이 분개하듯 그런 범죄는 아닐 것이었다. ‘탁란’이라는 번식 방법이 일방적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면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왔을 리가, 이어져왔을 수가 없지 않은가 말이다.

우주는 138억 년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동안 광대무변한 세계가 탄생하고, 지구 위에는 그토록 다양한 생명들이 번성할 수 있었다. 그 비결은 바로 연기^{緣起}라는 상생^{相生}의 이치다. 그러하니 삐꾸기와 딱새 사이에도 분명 어떤 상생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인간은 이기심에 젖어 비^非상생적인 생존방식에 길들여온 탓에 상상력이 빈약해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없을 뿐이리라.

작은 새들은 강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다. 그 덕분에 포식자들 사이에서도 너끈히 살아간다. 그래서 가끔씩 삐꾸기 새끼를 길러주면서 강한 모성애가 종족의 과잉번식이라는 파국으로 이어

지지 않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포르르 딱새가 날아간다. 연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작은 새야, 너는 사랑 가득한 우주 질서의 현현이려니. 연기의 꽃밭에서 만난 작은 새야, 네가 살고 있는 그 상생의 이치를 결코 잊지 않게 해주렴. 때로는 내가 너 되고, 때로는 네가 나 되어, 너와 함께 이 연기의 꽃밭을 살아가리니.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답구나. 이 가슴 평화로 충만하구나.



수행자의 힘 믿음과 말김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묵탁소리' 지도법사

우리는 이 세상과 진리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렇듯 삶의 진실에 어둡다 보니 온통 불분명하고, 복잡한 것들뿐이다.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다. 환히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 두렵고 무섭다. 미래에 대해서도 두렵고, 일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두려움뿐이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안락하게 해줄 도피처를 찾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 때 사람들은 어떤 '절대' 나 혹은 '신神', '불佛'을 가정해 놓고, 이제부터 그것을 믿기로 작정하기 시작한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이라는 두려운 곳에서 의지할 곳을 얻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와 믿음의 실체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언제고 바뀔 수 있다. 선택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내가 믿을 대상에 대한 확증 없이 그저 두려움과 나약함 때문에 믿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언제든 나의 믿음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한 종교에서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면 다른 종교를 또다시 선택하곤 하는 것이다. 참된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면 믿음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나 자신의 근본에 대한 믿음, 내 안의 참나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이란 이렇게 나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존재함으로써 스스로를 여지없이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나 자신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일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자기 근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약하지 않고, 두렵지 않으며, 강한 삶의 용기와 자신감에 넘쳐흐른다. 자기 자신의 본질이야말로 진리이며 신이고 부처인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기 안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괴로움이나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 경계(境界)가 자신을 휘두르지 못한다. 나아말로 진리의 현현임을, 진리가 나를 해칠 리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그럴만한 법다운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다.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내 근본에 대한 믿음의 힘이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내 안의 진리에, 내 안의 불성 혹은 영성에 일체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참된 믿음은 그렇듯 모든 것을 내맡기고 받아들일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온다.

내 바깥을 기웃거리면 선택할 것만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나 내 안을 바라보고 내 내면의 근본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분열이 없고 혼란이 없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당위이다. 그랬을 때 힘이 생기고 자기중심이 우뚝 서며, 일체를 내맡길 수 있는 굳은 믿음과 용기가 생긴다.

참된 믿음은 내맡김이고, 용기이다. 믿음이 없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늘 나를 따라다니겠지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없다. 오직 당당한 용기로써 내맡김만이 있는 것이다.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공식 카페

지난호 정답

①㉠ 부	처	님	㉡ 오	신	㉢ 날		②㉣ 동	파	㉤ 육
화			체		씨		행		합
뇌		③ 감	투			㉥ 춘			상
④ 동	㉦ 해		⑤ 지	㉧ 킬	앤	하	이	드	
	리			힐		추			
⑥ 경	포	대				⑦ 동	㉨ 대	문	
	터		㉩ 어		㉪ 용		부		
㉫ 금		⑧ 기	린		두		⑨ 도	다	㉬ 리
봉			⑩ 이	판	사	판			허
⑪ 어	버	이	날		미		⑫ 만	년	설

지난 호 정답에 참여해주신
법천사 교도 김재준님 고맙습니다.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㉓						②㉒			㉑
				④㉑					
③							⑤㉑		
				⑥					
		⑦㉑							
				⑧	㉓			㉑	
⑨㉓								⑪	㉑
				⑩㉓		㉑			
⑫								⑬	

가로 열쇠

-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든 업보가 소멸되는 진언
- 한 번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는다는 뜻
-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란 뜻의 대표적인 초기 경전
-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호밀밭의 000
- 일찍 머리를 깎고 출가한 나이 어린 승려
- 몸의 등과 옆이 가시로 덮여 있는 포유동물
- 노루와 비슷하게 생긴 울음소리가 특이한 사슴과 동물
- 인도 역사상 최고의 군주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
-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뜻
- 부호나 그림, 문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
-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적 사실

세로 열쇠

-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이자 산림생물종 연구기관
- 품삿을 받고 어떤 일을 맡아 하는 사람
- 진심을 다해 겨루는 승부
-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남쪽 지역, 미국의 친환경 패션 브랜드
- 체했을 때 먹으면 좋은 시원한 물김치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 물건을 사거나 쓰는 사람
- 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
-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과정을 이르는 말
-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 우편물이나 집, 상품 등을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사람
-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것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훤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종량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보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내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감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마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윤서	법 공	보명심	안한수
오승헌	오채원	오현준	우 인	이경옥
이수영	이인성	이해성	자선화	정화연
총지화	한철수			

발 행 일 총기 52(2023)년 6월 1일
발 행 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김상미
발 행 불교총지중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황동규 시인은
‘홀로움은 환해진 외로움’ 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움과 홀로움은 비슷한 결 속에서도
언어의 의미와 정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부정, 우울, 어둠이라면
홀로움은 긍정, 환희, 빛이 되고
삶을 무겁게만 바라보는 것이
외로움이라면, 홀로움은 그러한
시선에서 벗어나 한결 가볍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어느덧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홀로움으로
가볍게, 즐겁게, 환하게
노래하는 황동규 시인처럼
한 번쯤은 내 자신에게
‘내 외로움은 홀로움이야’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외로움이 두렵지는 않아요.
내가 외롭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외로워 죽겠다’가 아니라
그냥 ‘외롭다’라는 사실을 뜻할 뿐입니다.
내 외로움은 가볍습니다.”
-황동규 시인 인터뷰 중



06월호



마음이 모든 경계를 따르면 어두워지고
마음이 모든 경계를 비추면 밝아진다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중에서 -